

북한 제9차 당대회, ‘사회주의 대가정’ 향한 사회재편 방향 제시

박영자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sister1102@kinu.or.kr

I. 머리말

북한의 제9차 당대회가 2026년 2월 19~25일 6박 7일간 진행되었다. 금번 당대회의 주요 안건은 지난 제8차 당대회 이후 사업총화,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였다. 당 중앙위원 선출 및 지도기관 선거 이후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와 제1차 정치국회의, 그리고 열병식이 개최되었다. 전체적으로 금번 당대회는 ‘후계 대비를 포함한 김정은 수령 체제’ 선언과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한 대회였다. 금번 제9차 당대회 결과를 사회문화에 초점을 맞추어 전체적으로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한편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강조하며 지난 5년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사업총화이다. 구체적으로 주민복지와 관련하여 원산갈마와 온포온천 관광지와 휴양지 조성, 평양종합병원 완공 등을 대표적 성과로 제시하였다. 또한 교육과 보건 분야를 이전에 비해 선진적으로 발전시킨 점, 그리고 학생들에게 유제품과 학용품 등을 제공한 것을 대표적 인민중시 시책으로 자평하였다.

또 다른 한편으로,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사회문화 부문별 과업 제시이다. 대표적 분야로 교육 분야는 사상과 기술 중시 인재 양성, 도농 격차 축소, 전반적 교육의 토대를 현대적으로 개선할 것을 향후 과제로 제시한다. 보건 분야에서는 2025년에 이루었다는 보건혁명 성과의 전면적 확대, 의료인프라 확충 등 선진 보건의 토대 확보, 문화예술 분야는 대중동원과 사상강화를 위한 전 영역의 창작 활성화 등이다.

이러한 사회문화 분야 사업총화와 과업 제시는 어떠한 맥락과 논리에 기초하여 제시되었

을까? 그 목표는 무엇일까? 본고는 이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금번 제9차 당대회 결과를 사회문화 분야 중심으로 분석하고 평가한다.

II. 제8기 사업총화: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첫 단계』 성공

1. 1단계 완수 및 사회재편 위한 ‘간부혁신’ 필요

2026년 2월 19일 “간고한 투쟁의 위대한 총화, 새로운 려정의 시작”이라는 기치로 개막한 제9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지난 5년간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목표로한 첫 단계 개척”을 성공하였다고 평가하였다.¹⁾ 또한 김정은은 개회사에서 제7차 당대회 결정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 것에 비해, 지난 5년간 대북제재와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엄혹한 상황에서도 제8차 당대회가 제시한 과업은 성공적으로 완수되었다고 자평하였다. 특히 지방발전과 농촌발전 등 인민들을 위한 과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며 인민중시 노선의 성과와 지속을 논하였다.

그러나 “현재 당, 정권기관들과 일군들의 사업에는 뿌리 깊은 패배주의와 무책임성, 보수주의와 형식주의, 지도 능력의 미숙성과 같은 심각한 결점들과 부정적 요소들이 내재”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한다.²⁾ 노정된 문제들을 간부 책임으로 돌리고 향후 ‘간부혁명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이다. 즉, 제8차 당대회 이후 북한 사회발전을 위한 상당한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간부들의 잘못이라는 논리이다. 최고지도자 김정은은 인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올바른 지도와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인민들과 사업하는 간부들이 패배주의, 무책임성, 보수주의, 형식주의 등 상당한 문제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서, 아직 북한 사회 발전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간부혁신을 통한 사회개조 방향을 제시한다.

1)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 성대히 개막」 2026. 2. 20.
2) 김정은,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서 한 개회사」, 『로동신문』, 2026. 2. 20.

2. 사회문화 분야 총화

북한당국이 제8차 당대회 기간(2021~25)에 대한 사업총화 시 ‘핵무력’을 제외하고 가장 높게 평가한 것은 인민생활 향상, 농촌발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농업과 농촌 문제 해결이었다. 그리고 이와 연계된 사회문화 분야의 주요 성과로 크게 3가지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첫째, 과학, 교육, 보건 분야 발전이다. 즉, “나라의 과학기술력을 강화하고 교육과 보건을 선진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새로운 혁명이 일어났으며 각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발전을 지향하는 사업들이 적극 추진되었다.”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전국의 시, 군 발전을 위한 당의 <지방발전 20×10 정책>과의 연계를 중요시하며, 이 정책은 “전국 인민들의 지지 속에 당해연도 과학과 보건, 문명생활 분야를 아우르는 다방면적이고 폭넓은 지방발전정책으로 확대 심화되었다.”라고 하였다.³⁾

그리고 금번 제9차 당대회 이후 ‘새시대 지방발전정책’을 심화하겠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자력갱생’에 기초한 대중동원 사업이 중요하다. 따라서 김정은은 “지방발전정책의 생활력”으로써 인민들의 열의를 높이는 사업을 강조한다. 더불어 사업총화 보고에서는 보건위기 및 재해위기 극복과 관련하여 “강고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북한) 국가, 우리 사회 고유의 견고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과시되고 전 사회적으로 재재방지사업에 사활을 걸고 달려붙는 기풍이 확립”⁴⁾되었다고 자평한다. 이는 향후에도 북한이 보건위기 및 재해재난에 대해 대중동원에 기초하여 대응할 것이라는 것을 전망하게 한다.

둘째, 사회복지 및 민생분야 건설 관련 성과이다. 김정은은 사회문화 분야 주요 성과로 “국가경제 전반을 장성궤도에 올려세우고 인민들의 복리와 관련된 사회주의적 시책들을 확대 실시한 것”을 지목하였다. 내각책임제, 내각 중심 강화로 내각 주도 국가 ‘자력갱생’의 조직·지도를 통한 경제발전을 이루었으며, 이와 연동된 평양시 5만세대 주택건설, 지난 5년간 농촌에 약 11만세대 새집 공급 등 살림집 공급, 관광지과 휴양소 완료를 대표적 성과로 제시한다. 또한 중요 과업으로 설정했던 평양종합병원건설 완공, 연포와 강동, 신의주지구에 대규모 온실농장 건설 등으로 인민생활 향상을 이루어냈으며, 인민복리를 위한 생산, 공공, 봉사 시설을 강화하였다고 자평한다.⁵⁾

3) 『로동신문』, 「불굴의 개척투쟁으로 전취한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새로운 려정의 줄기찬 전성과 도약으로 이어나가자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 관한 보도」, 2026. 2. 26.

4) 『로동신문』, 「불굴의 개척투쟁으로 전취한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새로운 려정의 줄기찬 전성과 도약으로 이어나가자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 관한 보도」, 2026. 2. 26.

5) 『로동신문』, 「불굴의 개척투쟁으로 전취한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새로운 려정의 줄기찬 전성과 도약으로 이어나가자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 관한 보도」, 2026. 2. 26.

셋째, 미래 세대에 대한 지원사업이다. 김정은은 무엇보다 후대들을 위해 총결 기간 제일 어려웠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상방역 시기에 북한 전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유제품 공급 등을 주도한 육아·보육 정책의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그리고 소학교에서 대학교까지 모든 학생들에게 교복, 신발, 가방을 국가가 생산·공급한 것, 학생 소년들에게 교과서와 학습장, 필기도구를 비롯한 학용품을 정상 보장한 것 등을 “사회주의적 시책”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은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의 진리성과 생활력을 실증”한 것이라고 자평한다.⁶⁾

III. 제9기 정책에 따른 사회재편 방향: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기』

1. 3대 혁명 통한 ‘자연개조, 인간개조, 사회개조’

금번 제9차 당대회에서 이전과 달리 새롭게 부각된 정책 기조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이다. 3대 혁명운동은 1970년대 김정일이 후계자로서 입지를 굳히고 북한 전 지역에 청년을 중심으로 김정일의 측근을 구축하게 하였던 대중운동이다. 금번 제9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김정일이 주도한 사상 중시 3대 혁명운동을 재호명하며 사회재편 방향을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 김정은은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한 결론’에서 새롭게 구성된 제9기의 의미를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기”로 규정하면서 “지나온 변혁의 5년을 더 위대한 변혁의 5년으로 이어가야 할 혁명의 요구, 시대의 요구 앞에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겠는가를 자각하고 자신심과 분발심을 가다듬는 엄숙한 마음가짐”을 강조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한 북한의 사회재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⁷⁾

우선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노동당의 총노선으로 사상개조를 앞세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 강화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은은 간부들의 문제로, “당과 국가가 현대적인 생산기지, 봉사기지를 새로 꾸려준 지 1년도 못되어 관리운영을 제대로 하지

6) 『로동신문』, 「불굴의 개혁투쟁으로 전취한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새로운 려정의 줄기찬 전성과 도약으로 이어나가자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 관한 보도」, 2026. 2. 26.
7) 김정은,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서 한 결론」, 『로동신문』, 2026. 2. 24.

않으며 그에 대한 지도통제도 소홀히 하는 극도의 태만과 무책임성, 당정책의 산물을 귀중히 여길줄 모르고 목적의 리득에만 치중하는 고질적인 병집들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라며 우선 간부혁신 과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모든 북한 주민들의 사상개조를 위해서는 “특히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3대 혁명 기치하에 “자연개조, 인간개조, 사회개조 사업”을 강조한다. 이는 간부혁신을 중심으로 한 새시대 5대 당건설 노선을 3대 혁명이란 대중운동에 결합시킨 것이다. 그리고 북한 사회에서 “사상제일주의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는 것이 소위 “전면적 발전기”에 들어선 제9차 당대회의 과업이라고 강조한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사회재편 방향을 향후 20년까지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처럼 계속 5년 주기 계획을 수립·수행하되, “이제부터 10년, 20년 후에는 우리(북한) 당창건 90돐, 100돐과 맞게 되는 지금과 같은 투쟁방식으로 국가발전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착실히 추진”하겠다는 기조이다.

2. 대중동원 증시 ‘간부혁신—체제 수호—3대 혁명’의 연계

향후 20년을 고려한 사회재편 방향은 대중동원에 기초해 있다. 즉, 지난 5년과 같이 향후 5년도 “전적으로 우리(북한)의 주체적 역량, 우리(북한) 인민의 위대한 힘에 의거할 것”⁸⁾이라며 대중동원을 통한 사회재편 방향 지속을 선언한다. 그리고 당 제8기 기간 3대 핵심 슬로건이었던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 이념을 2030년을 목표로 한 당 제9기 기간에도 지속하겠다고 한다. 2026년 2월 25일 당대회 마지막 날 공개한 북한의 ‘조선로동당 제9차 대회에 관한 보도’의 핵심 구호인 “불굴의 개척투쟁으로 전취한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새로운 려정의 줄기찬 전성과 도약으로 이어나가자”는 지난 제8차 당대회 기조를 향후 5년 제9차 당대회 기간에도 이어 나가겠다는 것을 구호로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당 제9차 대회는 그 어떤 시련과 도전 속에서도 조선혁명의 전 역사를 관통하여 왔고 오늘의 값비싼 승리만이 아닌 백년, 천년의 승승발전을 담보해 주는 자주, 자립, 자위의 국가건설사상과 사회주의 건설의 전략적 로선인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의 기치를 생명선”⁹⁾으로 할 것임을 선언한다. 이는 북한이 제9차 당대회 기간 체제 수호를

8) 김정은,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서 한 결론」, 로동신문, 2026. 2. 24.

9) 「로동신문」, 「불굴의 개척투쟁으로 전취한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새로운 려정의 줄기찬 전성과 도약으로 이어나가자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 관한 보도」, 2026. 2. 26.

위한 핵심 국가전략으로 전통적인 대중동원에 기초한 자주, 자립, 자위 기조를 유지할 것이며, 이를 위해 '새로운 5대 당건설 노선'을 통한 간부혁신과 당조직 강화를 이룩할 것이고, 이와 연계한 사업 방향으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추진하겠다는 논리이다.

3. 3대 이데올로기,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 구현 정책

금번 당대회 기간과 현재까지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불변의 리념”으로 강조된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은 제8차 당대회의 이념으로, 북한은 2030년까지 사회재편 방향으로 이 3대 이데올로기를 지속할 것임을 선언한다. 관련하여 김정은은 지난 제8차 당대회 이후 총결 기간 동안 정치사상적 위력을 발휘했다는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 이념에 대해, “사회주의 건설에서 비상한 견인력과 생활력을 발휘”하였다며,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북한 사회문화 분야에 적용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한다.¹⁰⁾

첫째,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한 생산과 건설에서 인민군대의 역할 강화이다. 김정은은 “지난 5년간 조국보위, 혁명보위, 인민보위의 전초에서, 조국의 존엄과 명예를 지키는 준엄한 전장에서 또한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마다에서 당의 명령지시를 받들어 피와, 목숨, 땀으로 거대한 성과”를 올린 인민군대를 높이 평가하며 이와 함께 각종 건설장에서 헌신한 청년세대의 역할 또한 높이 평가하였다. 따라서 군대와 각종 건설장에서 청년세대의 역할 강화를 통한 사회재편 방향을 제시한다.

둘째, 새로운 5개년 계획 수행을 위한 과제들이다. 구체적으로 전면적 발전기의 시대적 요구로 ① 일치한 행동 통일과 강한 기강 확립, ② 낡은 도식과 틀, 보수주의, 경험주의 타파 및 혁신, ③ 전문가적 자질 중시, ④ 생산과 건설에 대한 지도 방법을 혁신하고 간부들의 지휘 능력 제고, ⑤ 사상의 힘, 대중의 정신력을 중시하며 ‘인민대중제일주의에 배치되는 모든 부정적 현상들과의 투쟁을 강도 높히 진행’하는 것이다. 김정은은 이것이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사업의 총적 목표와 원칙이라며 강조한다.

셋째, 건설과 인민생활 문명화이다.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지표별 목표와 함께, 김정은은 “건설사업을 계속 전개하여 국력 강화의 토대를 다지고 인민들을 새로운 문명으로 인도하며 복리를 증진시켜”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관련하여 수도 평양과 전국 도소재지 건설 지속, 정보산업, 관광, 국토관리와 생태환경보호 분야의 혁신이 언급되었다. 또한 “새로운 5개년 계획기간 지방발전, 농촌건설을 더욱 다그쳐 해마다 지방과 농촌을

¹⁰⁾ 『로동신문』, 「불굴의 개혁투쟁으로 전취한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새로운 려정의 줄기찬 전성과 도약으로 이어나가자 조선로동당 제9차당대회에 관한 보도」, 2026. 2. 26.

새롭게 변모시키며 전국 인민들의 물질문명 생활에서 보다 큰 개변을 가져오기 위한 과업”이 제시된다. 이러한 기조로 지방발전 정책을 전개하여, 2026년부터는 ① 매해 20개 시, 군들에 지방공업공장들과 병원, 종합봉사소를 어김없이 건설, ② 농촌의 도시화, 문명화, 선진화 실현, ③ 과학기술과 사회주의 문화 발전, ④ 에너지, 우주, 인공지능산업 등 신산업 분야와 첨단기술산업 관련 연구개발 노력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넷째, 교육과 보건 사업 발전이다. 사회재편을 위한 새로운 5개년 계획의 교육사업의 목표는 학생들의 사상개조와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이다. 즉, “모든 학생들을 혁명실천에 이바지하는 쓸모있는 인재로 알차게 키우고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수준 차이를 결정적으로 줄이며 나라의 전반적인 교육토대를 현대적으로 완비하는 것”이다. 보건사업 방향 역시 지방발전과 연계되어 있다. 즉, “2025년에 출발을 땀 보건혁명에서 거둔 성과를 보건부문 전반으로 급속히 확대하여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보건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가져다주고 나라의 보건토대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에 올려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5년 동안 지방에 현대적인 보건시설들을 갖추는 과제를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북한 전 지역 ① 100개 시, 군들에 선진적이고 완비된 병원 건설, ② 시·군 병원과 리진료소 사이에 필수적인 의료기관들 추가 설치, ③ 도소재지들에 현대적인 종합병원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 ④ 평양에 제2, 제3의 종합병원 및 새 구역병원 건설 과제를 제시한다.

다섯째, 사상강화와 당정책 관철을 위한 문화예술 및 출판보도 사업 등이다. 문화예술 부문의 과업은 “인민들의 혁명의식, 창조의식, 투쟁의식을 높여주고 광범한 대중을 당정책 관철”에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창작·창조 활동 방향에서, 영화와 음악, 무대예술, 미술 등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개화기가 펼쳐지게 하는 것이다. 출판보도 부문에서는 매 시기 제시되는 당의 노선과 방침들,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하여 원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해설선전하여 당의 사상과 목소리가 대중의 심장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야 한다는 기조이다. 그 외 체육사업을 발전시켜 “건전하고 고상한 사회주의생활이 온 사회에 지배하도록” 하는 과업을 제시한다.

여섯째, ‘새시대 5대 당건설노선’에 기초한 사회통제 사업이다. 북한은 제8차 당대회 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된 기초에 ‘새시대 5대 당건설노선’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¹¹⁾ 그리고 당의 지도역량 정비와 영도적 역할 강화를 위해 새로운 당규약의 기초적 방향이 된 ‘새시대 5대 당건설노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그간 사업총화에 기초한 이

11)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 2일회의 진행」, 2026. 2. 21.

노선의 주요 내용은 ① “그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전당이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인 당중앙의 령도적 권위를 절대화”하는 정치건설이론, ② “당규약의 내용과 조항들을 현행 당사업 뿐 아니라 당건설의 먼 앞날까지 내다보며 원리적으로, 실천적으로 완비해 나갈” 당의 조직건설이론, ③ “시대와 대중의 의식변화에 맞게 사상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개선”하는 사상건설이론, ④ “강력한 규률제도로 당을 관리하고 강화”하는 규율건설이론, ⑤ “당과 대중의 혈연적 유대”를 다지는 작풍건설이다. 그리고 이 ‘새시대 5대 당건설노선’을 북한의 노동당 강화를 위한 “사상이론적 무기”로 정의하였다.¹²⁾

이와 함께 김정은은 “모든 일군들이 당에 끝없이 충실하고 인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참다운 혁명가, 인민의 참된 심부름꾼, 훌륭한 인격자로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지도적 지침”이라는 “새시대 일군들이 지녀야 할 12가지 공산주의적 품성”을 밝히었다. 그 핵심 키워드는 “당성, 원칙성, 정치성, 책임성, 이신작치, 창발성, 군중성, 인간성, 진실성, 락천성, 도덕성, 청렴결백성”이다.¹³⁾ 그리고 이러한 간부혁신을 더욱 강화하여 제9차 당대회 이후 5년간 “사회주의 건설 전반을 확고한 전성과 도약의 궤도”로 올려 놓아야 한다고 총화하였다.¹⁴⁾ 이러한 과업과 품성은 북한 주민들이 일심단결하여 김정은에게 충성하고 당정책을 관철하게 하는 사회통제 사업의 근간으로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IV. 인선(人選)을 통해 본 사회재편 방향

1. 대표자 구성과 변화의 특징: 군인대표 · 현장간부 증대와 여성대표의 축소

금번 제9차 당대회에 참가한 대표자로는 당 중앙지도기관 성원 224명, 전당 조직에서 선출된 대표자 4,776명으로 모두 합쳐 5,000명의 대표자가 참석하였다. 대표자 구성을 보면, 당정치일군 대표 1902명, 국가행정경제일군 대표 747명, 군인 대표 474명, 근로단체 일군 대표 32명, 과학·교육·보건·체육·문화예술·출판보도 부문 대표 321명, 현장에서 일하는 일군·핵심당원 대표 1,524명이다. 이 중 여성 대표는 413명이다.

한편, 제8차 당대회 시에는 정치일군 대표 1959명, 국가행정경제일군 대표 801명, 군인 대표 408명, 근로단체일군 대표 44명, 과학·교육·보건·체육·문화예술·출판

12) 『로동신문』, 「새시대 5대 당건설노선의 정당성」, 2026. 2. 20.

13) 김향란, 「새시대 일군들이 지녀야 할 12가지 공산주의적 품성」, 『로동신문』, 2026. 2. 21.

14)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 3일회의 진행」, 2026. 2. 22.

보도 부문 일군 대표 333명, 현장에서 일하는 일군·핵심당원 대표 1,455명이 참석하였다. 이 중 여성 대표는 501명이었고, 당 중앙지도기관 성원은 250명 참석하였다. 주목할 점은 제8차 당대회 참가 대표자들과 비교했을 때, 제9차 당대회 참가 대표자로 군인대표와 현장간부가 증대하였고 여성대표는 축소된 점이다.

이는 한편으로 금번 북한의 간부 총원 시 국가과업에 성과를 보인 군인과 현장간부를 중시하여 선출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또 다른 주목할 점은 제8차 당대회와 비교할 때 여성 대표가 501명에서 413명으로 88명(약 18%)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금번 당대회에서 북한 중앙정치 내 김여정과 김주애가 부각된 것에 비해, 실제 여성의 대표성은 축소되었다. 이는 향후 북한 사회를 전망하는 데 중요한 지점이다.

대개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 정치지도자들이 등장하면 그의 주변에는 가부장제를 유지하며 정치사회적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주로 남성 엘리트들을 배치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는 남성중심 사회에서 ‘최고지도자들의 여성성을 희석시키기 위한 상징적 조치’이기도 하다. 즉, 여성이 아닌 ‘지도자’를 부각하기 위한 행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논리에 기초할 때, 북한체제에서 김주애와 김여정이라는 여성 지도자들이 부각되면서, 오히려 북한 체제와 사회 운영은 기존의 ‘권위주의적 남성지배’ 문화를 강화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2. 당원 규모 증대 약화의 의미: 위로부터의 간부 쇄신과 아래로부터의 당원 기피

주목할 점은 북한 체제를 유지·작동시키는 조선노동당 당원이 전체 주민에서 차지하는 규모와 변화 추이이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당대회 참가 대표자 선출 시 당원 1천명당 대표자 1명을 선출한다. 이에 기초할 때 제9차 당대회 기점 현재 북한의 조선노동당 당원 규모는 약 477만 6천명으로 추정(전당 조직에서 선출된 대표자 4,776명 기준)할 수 있다. 북한 전체 인구를 대략 2,500만명으로 가정하면 약 20%가 당원이다. 그런데 이는 기존 북한의 당원 규모 증대에 비해서는 매우 소규모의 증대이다.

김정은시대를 기점으로 하여 북한의 노동당 당원은 2016년 제7차 당대회 시 약 366만명으로 약 46만명 증대(1980년 제6차 당대회 당원 규모 약 320만명 기준)하였다. 2021년 제8차 당대회 시기에는 약 475만명으로 제7차 당대회 시에 비해 약 109만명이 증대하여 대폭적인 당원 확장이 이루어졌다. 이에 비해 금번 제9차 당대회 시 당원 규모인 약

477만 6천명은 제8차 시 약 475만명에서 약 2만 6천명이라는 매우 소폭의 증대이다. 제7차에서 제8차 기간 약 109만명의 대폭적 당원 증대에 비해, 금번 제9차 시에는 약 2만 6천명이라는 현저히 낮은 당원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 하나는 김정은 정권이 사회를 규율하기 위해 '간부혁명화'라는 기치로 간부혁신을 핵심 사업으로 하는 상황에서 당원으로 구성된 간부들을 정예화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북한 사회에서 이전에 비해 '혜택은 적고 책임과 의무는 높아진 당원'으로 살아가기가 점점 더 힘든 상황이 지속되며 당원이나 하층 간부를 기피하는 현상이 증대한 것이다.¹⁵⁾

V. 맺는말

사회문화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금번 제9차 당대회를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김정은 수령화와 4대 세습을 고려한 북한의 '사회주의 대가정' 구축을 향한 북한 사회재편 방향 제시이다. 본문의 내용에 기초하여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2026~30년 북한의 '사회주의 대가정'을 향한 사회재편 방향

구 분	내 용
2026~2030년의 당·국가적 의미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기'
국가건설 사상	자주, 자립, 자위
이데올로기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
총노선과 목적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통한 자연개조, 인간개조, 사회개조
노선 및 총적 과업	'새시대 5대 당건설노선'에 기초한 간부혁신과 사회통제를 중심으로 '사상제일주의 및 인민대중제일주의' 구현
주요 방법	대중동원, 간부혁신, 주민들의 혁명화·노동계급화, 사회 규율·통제
타깃 계층	청년세대, 군인, 현장간부
사회재편 목표	아버이 김정은(수령), 어머니 당, 어린 자식(주민)이 일심단결하여 생활하는 '사회주의 대가정' 구축

당대회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 사회문화 분야 기조는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북한 체제의 집단주의적 사상과 행동 통일이다. 금번 제9차 당대회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에서 제9기 당 중앙위원회 위원 선출과 함께, 김정은이 조선노동당 총비서(이하 당총비서)로 재추대되며 그의 수령화 작업이 마무리되었다. 북한 당국은 김정은을 당총비

15) 이와 관련한 구체적 실태는 박영자 외, 『북한의 권력엘리트 분석: 북한 변화에의 함의』, 서울: 통일연구원, 2025를 참조하라.

서로 재추대하면서 ‘비범함, 특출한 영도력, 인민적 품모’ 등 그의 신격화 수사를 제외하고 정당화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김일성과 김정일을 계승하였으나 이를 발전시키어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근본적 전환”을 이룬 성과, 즉, 당 중심의 통치시스템 구축이다. 둘째, ‘새시대 5대 당건설노선’을 통한 당의 영도력과 규율·통제 강화이다. 셋째,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 개시와 단계적 이행이다. 넷째, 자립경제에 기초한 5개년 계획 완수 등 경제성장 및 ‘건설혁명’ 등을 통한 경제 문화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의 토대 구축이다. 다섯째, 지방과 농촌 발전, 과학과 교육 등 각 분야 성과이다.¹⁶⁾ 이러한 성과를 논리적으로 밝히며 북한 당국은 김일성과 김정일을 넘어선 ‘김정은 수령화’를 완성하였다.

북한 당국은 제도적인 ‘김정은 수령화’와 함께 북한 주민들이 지녀야 할 마음 자세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받들고 따르는 길에 우리의 눈부신 행복과 미래가 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가리키시는 길이라면 하늘땅 끝이라도 우리 가리라!”를 제시하며, 이것이 북한 주민들의 신념과 의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위대한 당중앙이 가리키는 승리의 한길을 따라 산악도 격랑도 뚫고 헤치리라!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향도따라 하루빨리 이 땅우에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락원을 눈부시게 떠올리리라!”라는 기치를 제시하며, 김정은을 중심으로 북한 사회구성원 모두가 일심단결하고 절대 충성할 것을 요구한다.¹⁷⁾

또한 김정은 수령화와 함께 김정은이 새로운 북한 사회를 구상하며 이야기하였다는 ‘사회주의 대가정’ 건설이 강조된다. 김정은은 이에 대해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사상과 신념, 동지적 사랑과 의리로 굳게 결합되고 온 사회가 서로 돕고 이끄는 화목한 대가정이 되어 생사운명을 같이 해나가는 여기에 우리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이 있습니다.”라고 하였다.¹⁸⁾ 아버지 수령, 어머니 당, 그리고 부모를 믿고 따라야 하는 어린 자식인 인민들로 구성된 사회주의 대가정을 강조하는 것이다.¹⁹⁾ 소위 ‘이민위천’²⁰⁾ 이념을 중심으로 최고지도자인 아버지 김정은과 어머니 당에 충성을 다하여 사회주의 대가정 체제를 완성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영광과 행복이라는 논리이다.²¹⁾

16) 그 외 여섯째, 첨단전략 무기 개발과 “조선인민군을 최정예화, 강군화”한 국방력 강화이다. 일곱째, 북한의 “존엄과 권위를 비상히 높이고 우리(북한) 혁명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한 대외활동의 성과이다.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 결정서 조선로동당 총비서 선거에 대하여」, 2026. 2. 23.

17) 방성화, 「정론, 인민의 환희 강산에 넘친다」, 『로동신문』, 2026. 2. 25.

18) 리남호, 박춘근, 「시대가 꽃피는 새 인간관계」, 『로동신문』, 2026. 2. 25.

19) 이와 관련한 구체적 실례는 박영자 외, 『북한 주민의 가정 생활: 국가의 기획과 국가로부터 독립』, 서울: 통일연구원, 2023을 참조하라.

20) 최근 북한 당국은 이민위천에 대해, “전당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을 당건설과 당활동의 출발점으로, 절대불변한 원칙으로 하는 혁명적 당풍을 확고히 견지할 데 대한 우리 당의 항구적인 요구가 반영”되었다고 한다. (김용일,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불변의 리념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 『로동신문』, 2026. 3. 1).

21) 『로동신문』, 「사회주의대가정에 차넘치는 무병장수의 기쁨」, 2026. 2. 24.

참고문헌

- 김정은,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서 한 개회사」, 로동신문, 2026. 2. 20.
- _____,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서 한 결론」, 로동신문, 2026. 2. 24.
- 김용일,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불변의 리념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 로동신문, 2026. 3. 1.
- 김향란, 「새시대 일군들이 지녀야 할 12가지 공산주의적 품성」, 로동신문, 2026. 2. 21.
- 리남호, 박춘근, 「시대가 꽃피는 새 인간관계」, 로동신문, 2026. 2. 25.
- 방성화, 「정론, 인민의 환희 강산에 넘친다」, 로동신문, 2026. 2. 25.
- 박영자 외, 『북한 주민의 가정 생활: 국가의 기획과 국가로부터 독립』, 서울: 통일연구원, 2023.
- 박영자 외, 『북한의 권력엘리트 분석: 북한 변화에의 함의』, 서울: 통일연구원, 2025.
- 『로동신문』, 「새시대 5대 당건설로선의 정당성」, 2026. 2. 20.
- _____,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 성대히 개막」 2026. 2. 20.
- _____,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 2일회의 진행」, 2026. 2. 21.
- _____,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 3일회의 진행」, 2026. 2. 22.
- _____,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 결정서 조선로동당 총비서 선거에 대하여」, 2026. 2. 23.
- _____, 「사회주의대가정에 차넘치는 무병장수의 기쁨」, 2026. 2. 24.
- _____, 「불굴의 개척투쟁으로 전취한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새로운 려정의 줄기찬 전성과 도약으로 이어나가자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 관한 보도」, 2026. 2. 26.